

# 주변문화의 전문성 살린 열린 공간

## 남성 동성애자 전문서점 '프린츠 아이젠헤르츠'

박진희

베를린공과대 과학기술사 전공

몇년 전까지 베를린에는 세 곳의 여성전문서점이 있었는데 '틸리트'라는 여성전문서점을 마지막으로 모두 문을 닫아버렸다. 여기에 몇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페미니즘 또는 여성문제가 이제 독일에서는 주류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베를린에 있는 웬만한 서점에 가보면 여성전문서적만을 따로 독립시켜 진열해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증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독일은 문화적 수준이 높다는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마시길. 언제나 환상은 금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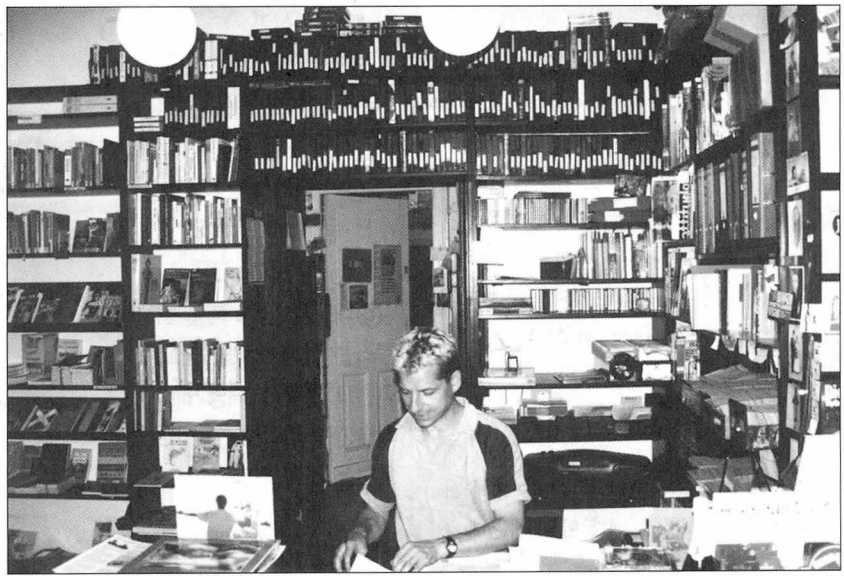
주류문화로의 귀속은 여성운동 초기의 순박하고 변혁적인 의식에 퇴색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여성문제를 사회학·심리학적으로든 또는 문학적으로든 진지하게 다루는 전문서적들은 베를린 어느 서점에 가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책은 계산대를 뜨겁게 달구주는 패션잡지·뜨개질·요리·꽃꽂이 등 지극히 남성적인(?) 여성서적들과 함께 발견된다.

### 다양한 종류의 동성애 서적 갖춰

주류문화가 여성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할 일이 아니지만 이런 귀속적인 이면에는 언제나 저

베를린의 블라임트로이 거리에 위치한 '아이젠헤르츠'는 20년 전 문을 연 이후 남자 동성연애자를 위한 서점으로 독자성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40평 규모의 아담한 서점을 친구처럼 지내는 주인과 종업원들이 꾸러나기는데, 연간 매출규모는 약 8억원 정도라 한다.

질화·하향평준화가 따라 붙게 마련이다. 그래서 《클라라 체트킨》 다섯권이 아니라, 《클라라 체트킨》 한권에 《스위트 홈》 다섯권과 《레이디 경향》 다섯권의 모습이 되어버린다. 주류문화로의 포섭이 오랫동안 수지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운동차원에서 여성전문서적을 팔면서 여성운동의 사랑방 구실을 수행하던 작고 예쁘기도 하며 또한 정말 당차기도 한 '틸리트' 같은 여성전문서점들의 존재기반을 앗아가버렸다.



1만2천여종의 다양한 책들이 진열돼 있는 '프린츠 아이젠 헤르츠' 서점.

베를린 공과대학 근처 블라임트로이 (Bleibtreu, 물방초)거리에 위치한 '아이젠 헤르츠'는 1978년에 문을 열 당시와 마찬가지로 남자 동성연애자를 위한 서점으로 독자성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약 40평 규모의 아담한 서점이다. 두명의 주인과 다른 두명의 종업원(종업원이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친구들처럼 보였다)이 꾸러나가고 있으며 연간 매출규모는 약 8억원 정도.

서점 안에는 약 12,000여 종의 책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종류들이 그야말로 다양하다. 섹슈얼사이언스(성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 일반, 호모 섹슈얼리티에 관한 사회학·심리학서적들, 레즈비언 관련서적부터 시작해서 고전적인 소설, 통속소설, 추리소설 뿐만 아니라(모두 남성 동성애와 관련된 소설들이다), 남성패션과 관련된 잡지, 만화류, 우편엽서 그리고 타문화에 그리 개방적이지 않은 사람은 약간의 호흡을 조절해야만 볼 수 있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사진집, 그리고 호모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 등. 그외에 외국서적을 모아둔 진열대도 눈에 띈다.

베를린에서 남성 동성애 전문서점으로는 프린츠 아이젠헤르츠가 유일한데, 전 독일에 이런 전문서점이 5개가 있다고 한다. 이들 서점은 매년 다섯번에 걸쳐서 공동으로 홍보지를 발간한다. 프린츠 아이젠헤르츠 역시 매년 5회 홍보지를 발행한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프린츠 아이젠헤르츠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남성 동성애 서점연합의 웹사이트 (<http://www.gaybooks.d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남성 동성연애자를 위한 사랑방

이 서점 연합은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동성애 문학작가를 공동으로 초빙해 강연회를 갖기도 하며 낭독회를 열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는 에드먼드 화이트, 리타 미 프라운 등 우리에게 생소하나 세계에선 꽤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 발표회 및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 1930년에 발표된 크리스토퍼 이셔우드(Cristopher Isherwood)의 《Goodbye to Berlin》은 동성애 문학의 고전으로 유명하지만, 우리로선 낯선 이름이다. 그만큼 다른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깊다고 할까. 이런 행사는 설령 동성연애자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려 있는 행사이며, 신문이나 베를린 지역의 문화행사 소개 잡지에 미리 게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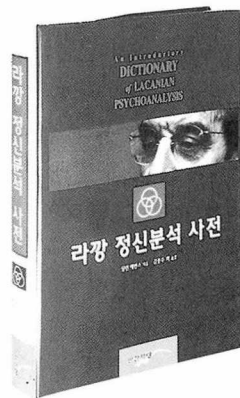
프린츠 아이젠헤르츠라는 서점 이름은 무리해서 한국어로 옮기면 '철(鐵)심장 왕자'다. 서점주인 피트 반 다 발스(Piet van der Waals)씨에 따르면 중세기사 '바리안트'를 그린 한 만화의 주인공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이 바리안트라는 기사와 다른 기사들과의 우정이 특히 돈독(?)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반 다 발스씨는 네덜란드 사람으로 암스테르담에서 똑같은 전문서

## 라캉 용어의 맥락적 접근

딜런 에반스 지음 《라캉 정신분석 사전》

프로이트 이래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이 강한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 용어를 사전식으로 정리했다. 《라캉 정신분석 사전》(김중수 외 옮김)은 라캉이 사용한 200여개의 용어를 골라 자세하게 설명했다. 용어의 선정기준은 그것의 사용빈도, 따라서 '신경증'과 '상징적'과 관련된 말들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사실, '라캉 용어 사전'은 라캉의 뜻과 배치되는 작업이다. 라캉은 어떤 용어에 대해 아무런 주석을 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을 좋아했다. 이러한 유지를 받들어 '사전'의 저자는 라캉 용어의 맥락 설명에 주



력했다. 프로이트와 소쉬르 그리고 헤겔의 세계를 끊임없이 넘나든다. 아울러 라캉 용어가 지닌 복잡성의 환기도 도모했다. 번역은 최근 출법한 '한국 라캉 정신분석 학회' 회원들이 맡았다. <최성일> 인간사랑/A5신/486면/25,000원

# 여성의 목소리 담은 웹사이트

페미니스트 문학저널 <자기만의 방> 사이트 외

노수경 · 웹진 '달나라말세포' 편집장

점을 경영하고 있다가 10년전에 프린츠 아이젠헤르츠를 인수했다.

이 서점은 단지 책을 파는 서점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랑방 역할도 충분히 수행한다. 동성애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게시판이 서점 한 가운데 설치돼 있다. 서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서점 전시장에 낙서를 해대거나 욕설을 퍼붓고 지나기도 했는데, 90년대 들어서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주변문화로 어느 정도 자리잡아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가끔 윤리적으로 매우 엄격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집단으로 찾아와 웃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일 뿐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행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반 다 발스씨는 덧붙인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처음 몇몇 동베를린 노인들이 서베를린에 구경왔다가 서점에 들른 적이 있었다. 평소에 동성애라는 주변 문화의 존재를 상상하지 못했던 노인들 중 한 사람이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혼절하여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

## 동성연애자의 상업화 경고

동성애자 전문서점이라면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거나 또는 모르고 들어왔다가 서점의 성격을 알아채고 황망히 발길을 돌리는 현실이 아직도 안타깝다고 반 다 발스씨는 밝힌다. "사회문화운동의 일환이라고 하는 서점, 동성애자들만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전문성도 결여하지 않는 공간으로서의 서점이고 싶다." 전문서점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덧붙이는 반 다 발스씨의 바람이다.

70년대 말 주류문화로부터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 있는 동성연애자들의 목소리를 어떤 형태든 보존하고자 만들었지만, 90년대 말인 지금에는 동성애자들의 연례 거리행진 행사인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hristopher street day)의 상업화 경향까지 조심스레 경고할 만큼 시대는 변하고 있다. 주류문화에 대항하면서도, 또 다른 주류가 되지 않고자 하는, 확실히 자리잡은 주변문화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외국의 사이트들을  
통해 아직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은  
여성관련 책·잡지와  
함께 전세계 여성의  
목소리와 그들의 삶을  
알 수 있다.



'Rooms of One's Own' 사이트(위)와 'Reading Woman' 사이트.

도대체 여성에 관한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화여대 도서관? 우리나라에선 여성·여성학·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화여대 도서관이다. 이화여대 도서관에 가지 않고 찾으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는 여성관련 웹사이트가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고작 몇몇 유명한 단체들의 홈페이지뿐이다. 물론 여성학·여성작가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그런 자료를 축적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요즘, 소설판에는 여성작가들밖에 없다고 누군가는 푸념하겠지만, 주로 남성들로 이루어진 출판업계 네트워크에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여성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작가와 여성독자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곳은 아직까지 외국의 사례뿐이지만 대표적인 몇 개의 웹사이트를 소개하겠다.

먼저 'Rooms of One's Own' (<http://www.islandnet.com/Room/enter/>)을 찾아가보자.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자기만의 방>을 연상케 하는 이 웹사이트는 1975년에 생긴, 여성 작가들을 위한 캐나다의 가장 오래된 페미니스트 문학저널이다.

남성들의 문학저널 네트워크에서는 출판되지 않는 여성작가를 위해 그리고 아직 들리지 않았던 독자들의 반향을 위해 만들어졌다. The West Coast Feminist Literary Magazine Publishing Society가 만들어지면서 Rooms of One's Own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이 웹사이트는 Rooms of One's Own에 대한 소개, 여성 작가들이 쓴 글을 읽을 수 있는 Reading Room, 회원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getting your own room, 자신의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writing room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reading room에는 시와 소설, 비평, 논픽션 등이 올라와 있다.

'Reading Woman' (<http://www.readingwoman.com/>)은 8페이지 분량의 뉴스레터 형식을 갖춘 계간지이며, 1993년부터 독자들이 책을 고르는 것을 돕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 이들은 출판사로부터 어떠한 광고나 영향도 받지 않으며 좋은 질의 추천 작품들을 스스로 골라내서 뉴스레터를

만든다. 이 웹사이트의 요약과 초록들은 과월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아권의 여성학 동향을 읽으려면 'SAWNET Bookshelf' (<http://www.umiacs.umd.edu/users/sawweb/sawnet/SAW.books>)에 가본다. SAWNET는 South Asian Women's Network로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네팔 등 남아시아여성의 이슈에 대한 포럼 같은 곳이다.

소설과 시·논픽션·선집(앤솔러지)·잡지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남아시아의 여성 작가들이 짙막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문학도서 뿐만 아니라 요리책에 관한 카테고리도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은 여성 관련 책·잡지와 함께 전세계 여성의 목소리와 그들의 삶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능을 가진 단체나 웹사이트들이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